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최고 12배까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지는 이미 오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의 4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렇게 들었다

■ 계율을 잘 지키면 명예를 얻고 남에게 베풀면 큰 재물을 얻으며 거짓없이 진실하면 덕망이 높아지고 은혜로우면 착한 벗을 얻게 되느니라.

(잡아합경)

■ 과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것은 오래 갔고 어떤 것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 가르침이 오래 존속된 부처님들은 반드시 계율을 제정하여 제자들이 지키게 하였다.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하지 말라. 이 일은 생각하고 이 일은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끊고 저것은 잘 지켜라." (사분율)

■ 수행자여,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들여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죄우를 보고 몸을 펴고 구부리기와 웃이기 등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앉고 눕고 오고 갈 때 질서가 있고 흐

법·질서 준수 "도 벗어나 부 누리는 일 없어야"

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합경)

■ 만약 비구·비구니가 미혹해서 계를 어기거나, 부끄러움 없이 율의를 업신여겨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 그런 사람은 죽어 지옥에 태어나느니라.

(목련소경)

■ 차라리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 달래달라지정. 마음을 방종해 가져서 그 계율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에는 다만 일생을 파괴하는 데 그치거나, 계를 깰 때에는 백만생에 걸쳐 악도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계경)

■ 차라리 도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리려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 내가 모든 중생을 관찰하니, 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탓으로 악취에 도로 떨어져 율회를 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길이 계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필코 불환과(不還果)를 얻어서, 이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본사경)

■ 선악의 행위는 재 미음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복(禍福)이 사람 탓으로 생긴은, 마치 그림자가 형태를 좇고 산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 같아서, 계행과 덕은 저절로 응하게 되어 있다. (이반분별경)

■ 많은 도리를 배웠어도 방일해서 바른 행위를 좇지 않는다면, 목동이 남의 소를 세는 것 같은 뿐이다. (출요경)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민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02)722-4162 · 팩스: (02)737-0698 · 전자인: aum · 81011 · 3473

도박승은 불교공신 보시금 제대로 쓰시길

얼마 전 사찰에 기도하러 갔다가 스님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한달 생활비(50만원)를 몽땅 보시금에 쏟아부으면서 더 많이 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신도들의 탐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돈으로 도박을 즐기거나 고급승용차를 굴리거나 무위도식하는 스님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스님들은 다소 부족해야 올바른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스님이라는 신분만으로 불자들에게 군림하려는 것은 결코 계율에도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올바른 곳에 쓰여지지 않는 보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훨씬 값진 보시라고 생각한다. 이만아심(서울 신정7동)

가정·직장·사찰 신행 생활화 연계

의원은행복지회 회원들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은행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불자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 교사인 딸에게도 교사불자회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가정·직장·사찰 신행 생활화 연계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불자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인연의 끈을 이어주는 일에 무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의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자성종교인 불교를 가족들에게 대리종교로 만족하게 하는 우(愚)를 배려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는 부처님의 향기로움을 말씀해 줄 수 있도록 가정전법에 나서보자.

출판기사 비평 곁들여야

현대불교신문에서 매주 한 면씩을 할애해 출판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에 먼저 고마움을 전한다. 책은 매우 소중한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교육 교재이자 전법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불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기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신문의 출판면은 좋은 안내자이다. 따라서 한두권의 책을 중점적으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비평을 곁들여 소개해주길 바란다. 오경미(서울 동교동)

열린마당

케이블TV 채널티어링제

케이블TV 업계의 지도가 바뀐다. 문화관광부와 국민회의는 8월28일 당정협의를 갖고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케이블업계의 회생 방안으로 종합유선방송국(SO)의 채널티어링제(채널유용제)허용과 프로그램 공급자의 업종(장르)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실시해왔던 전채널 의무 전송 규정을 폐지, 1사가 다수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자생존'을 통한 구조조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전송규제가 폐지된다면 시청률이 저조한 종교TV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종교TV측과 케이블업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8월28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채널티어링제와 업종변경 허가 등을 골자로 한 케이블TV 지원대책으로 업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종교TV는 유료 의무전송이 안될 경우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채널 정신교화 '공익'

남현섭님 <불교TV 기획실장>

불교TV와 같은 종교채널을 재미와 흥미를 위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종교 채널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여타의 채널에 비해 상업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번에 발표된 채널티어링제에서 종교채널을 의무전송한다는 규정없이 타채널과 함께 경쟁시킨다면 종교채널의 존립은 어렵게 된다.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준다. 자기반성을 통해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주며 자신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의 정신도 길러준다. 따라서 종교채널은 인민의 척도인 시청률 이외의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가입자들도 종교 채널만큼은 언제든 시청할 수 있는 의무 전송을 실시해야 한다.

상업-종교방송 구분돼야

심정일 <기독교TV 총무부장>

기독교TV는 수익보다는 방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국이다. 하지만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운영 경비가 필요하다. 공공채널처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업계의 지각변동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선 타채널과 함께 경쟁해서는 사실상 힘들다. 이런 특성을 정부와 업계는 충분히 고려해 종교TV를 유료로 시청자들에게 송출해야 한다. 의무전송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돼 종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이다. 케이블업계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의 정서를 좌우할 수 있는 종교방송을 외면한다면 어리석은 판단일 것이다.

종교인구 감안 의무전송

김병만 <평화방송TV 총무부장>

좋은 방송과 좋아하는 방송은 구별된다. 좋아하는 방송이 반드시 좋은 방송일 수 없듯이 좋은 방송이 꼭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방송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 시청자들의 구미에 맞는 방송만 살리려고 하고 있다. 종교TV는 분명히 타채널에 비해 방송의 당골함은 없다.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기는 말처럼 종교TV가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송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철저히 시장경제 원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채널티어링제에서 종교TV는 살아남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비종교인보다 종교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종교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한다.

티어링제 선택 불가피 종교채널 자구책 찾길

조재구 <케이블TV협 시업국장>

채널티어링제는 4년전 케이블TV가 출범할 당시부터 종합유선방송법 20조 2항에 명시돼 있었다. 다만 첫 출발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면 인기채널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년간 유예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다. 공공성이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 공급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채널티어링제는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해 놓은 법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 뿐이다. 채널티어링제의 실시는 그동안 사업자 위주로 진행돼 왔던 사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기본요금 1만5천원에 유료채널 7천8백원을 더해 2만2천8백원을 내야했던 시청자들은 5천원~1만5천원 내내 4~5가지 다양한 가격대의 유료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케이블업계의 상황으로 보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각 지역은 물론 개인에 따라 소득 수준과 문화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할 것이다. 이 다양성을 잘 파악해 채널티어링 상품을 개발한다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다.

종교채널은 공공채널로 규정된 의무전송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는 타당치 않다. 프로그램공급업체의 설립이 동등적인 현행법상에서 종교채널을 의무전송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업계에서 종교TV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세 개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세 개의 종교 외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가. 그 종교들 속에서는 사이비적인 요소가 많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종교도 포함돼 있다. 만일 이 종교들이 간단한 서류절차만 거치면 되는 방송국을 설립해 놓고 국민들에게 의무전송을 시킨다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다.

처음부터 종교TV도 업계의 한 방송국으로 출발했다. 채널의 특성이 다른 채널과 구별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구책을 마련해 채널티어링에 참여해야 한다.

채널티어링제한 4~5개 채널 묶어 시청자 선택

채널티어링(Tiering)이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29개 케이블방송을 모두 시청했던 기존 제도와는 달리 시청자의 기호에 맞는 4~5개의 채널군으로 편성, 각기 다른 가격으로 프로그램 묶음을 상

대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시채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시청률을 인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채널티어링의 유형에는 요금과 연계한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전·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호(攸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길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시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利器이 피며 더 비만 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불로화정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 (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신선(仙人)의 주식(主食)은 시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여차 말로 다 할 수 있겠다.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으로써 불을 생(生)히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 五行의 三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시할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이은 여러차신(차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소나무임양장주(梁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종합식품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배편·솔미다·송화기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령령·적복령·백복령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삼 등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일정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늦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있지 않은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을 날이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기암,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의학혁명을 할 예정이다.

솔효소정액 (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특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 (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특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대구여원